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⑭ - 재산사·下

위정척사의 기치를 높이 드신 면암 최익현 선생과
우국지사 염재 최면식 선생을 봉양하고 있는 사당



최 중 구
포천명유회 회장

최면식(崔勉植)(1891~1944)

선생은 면암 최익현의 현손으로 호는 염재, 자는 경소, 본관은 경주이다. 1910년 국치를 당하자 국외로 망명, 국권회복을 위해 수시로 국내에 잠입하여 군자금 및 무기조달에 전념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수차 옥고를 치렀다. 1916년 광복단 조직을 위해 기호지방에서 활동하다가 만주로 건너가 김좌진, 박상진, 노백린, 채기중 등과 우의를 다졌다. 선생은 독립운동 사명을 띠고 국내에 잠입했다가 목포에서 체포되어, 2년여의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만주로 탈출하여 활약하였다. 1921년 재일입국했다가 광복단 사건으로 대전에서 체



재산사 전경.

포되어, 무기수로서 공주형무소에서 복역중 형무독화로 출옥한 뒤 순국했다. 1977년 독립유공 대통령포장, 1980년 건국포장 그리고 1990년 12월26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3) 재산사의 구성과 배치

재산사는 평지에 자리잡고 있다. 앞 뒤로 시야가 트이면서 들이 펼쳐져 있다. 뒤쪽 좌측 산기슭에 청성사가 있다.

구조는 화강암으로 축조된 장대석과 자연석으로 축조된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우와, 삼문이 있고, 주위는 자연석 막돌로 축조하고 기와를 올린 담

장이 둘러 있다. 사우의 전면 중앙 추녀 밑에는 현관을 내걸었다. 재산사의 본전인 사우의 전면에는 각 칸마다 창방을 설치하고, 공간포가 없는 대신 2개의 소로가 각 칸의 장혀를 받치고 있다. 그 위에 굴도리를 설치하고 서까래를 얹어 겹처마의 맞배지붕을 형성하였다. 평주와 귀기둥머리의 보머리를 받친 익공은 초익공이며, 좌우측 벽에 방풍판을 달았다. 내부의 마루는 정자형이다. 안에는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자리를 펴두었다. 그리고 중앙 단리 밑에 중문을 만들고, 중앙 칸에는 4짝의 복합문을 놓았다.

문에는 두짝의 복합문을 달았다. 분합문 밖에 화강석으로 섬돌을 놓았다.

사우 안 쪽 중앙에는 면암 최익현선생의 위패가 중앙 복단에 남향하여 모셔져 있다. 그 좌측 곁에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면암선생이 73세때 그린 관복차림의 전신좌상이다. 규모는 가로 53cm, 세로 98cm 크기이다. 충남 청양군 정산현감으로 있던 채윤신이 그렸다. 중앙 우측 상단에는 유립 안상임이 지은 '침배재산사'라는 시가 각자한 현판을 걸어 두었다.

염재 최면식선생의 영정 및 위패는 서단에 동향되어 모시었다. 염재선생의 영정은 석부 박영수 화백이 그렸다. 규모는 가로 54cm, 세로 92cm 크기이다. 한복 차림의 전신좌상이다. 두 분의 영정은 각각 분합문을 달아서 훼손을 방지토록 하였다.

사당 주변에는 네모난 담을 쌓고 앞쪽에 외문을 내었다. 외문은 사당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사당의 중문과 마주보게 된다. 삼문담장으로 외부 공간과의 구획을 지어 분별하게 하였지만 담장의 높이는 높지 않게 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깨지 않고 적용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자·유·기·고

우리 아이 국어능력은 어느 정도?



김 미 경
주부영어기자단 영문학지부장

나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아이 아빠의 주관적인 지론에 따라 학교성적이 아주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나도 신경 쓰지 않고 학원 한번 보내지 않으며 여태껏 키워왔다.

그러나 내 이런 기대는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국어 점수 100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것이다. 국어 한 과목이라 해도 이것은 도저히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국어교육은 필수가 아닌가.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예체능과목 다음으로 국어를 제일 쉽게 생각했었다.

기본만 갖추고 조금만 노력하면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왔는데...너무 기가 막혔다. 그러나 영어나 컴퓨터는 수준급 이상의 상위권이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비단 우리아이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각 가정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없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쓸데없는 언어들을 배웠다.

쉬운 예로 내가 인터넷포털 카페 대화방에 들어가 대화를 해보려 하면 나 같은 40대들도 컴퓨터상에서 나누는 대화가 국어와는 전혀 상이한 국적불명의 말들로 대화가 이루어져 내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끼어 들 수도 없기 때문에 한 마디 해보지도 못한 채 그저 구경만 하다가 그냥 나왔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시간에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쪽지, 메신저 등 대화창을 최소한 대 여섯 개 이상씩 띄워놓고 전방위적인 채팅을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야 말해 무엇하랴. 아직 국어교육에 대한 체계가

확실히 정립되지도 않은 어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익히고 있는 은어와 채팅용어들은 정말 그 한계가 어딘가 싶게 날로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 말이다.

오죽하면 신입사원 입사원서에 채용용어가 등장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든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그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도 내 자식의 국어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도 국어실력이 형편없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

후일 회사에 취직해서 기안문서 작성하는 데 이모티콘이나 채팅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현실과의 괴리현상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특별 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권한



노 영 민
포천경찰서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 규정과 '검찰수사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한다'는 검찰청법 제46조 2항의 규정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3항의 규정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마약수사주사보 또는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 중 5급 내지 7급 상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내지 9급 상당 공무원은 동법 제19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는 검찰청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5급 내지 7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및 마약수사사무관·5급 내지 7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선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 범죄의 성질이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취급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삼림공무원, 세관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지역적 제약과 전문성 부족으로 말미암아 수사가 미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범죄수사 전반에 효과를 올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도소장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권한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근무감독관, 세관공무원과 같이 전속직 경찰관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배타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세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들 세관장에게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고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 재량이 있으며, 조세범포탈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야 논할 수 있고, 역시 고발 여부에 대한 재량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출입국사범도 수사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들 기관장에게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고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 재량이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고발이 소추요건으로 되어 있는 관세법·출입국사범법은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고발여부가 결정되므로 세관공무원·관세공무원·출입국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은 수사권이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사법경찰관도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사법경찰관에게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한 조사권, 피의자·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 피의자 신문권, 피의자와 참고인과의 대질조사권, 10일간의 구속수사권, 사후 검사 승인조건부 긴급체포권, 제한된 범위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권, 고소·고발·자수의 접수·조사·송치권 등과 같은 수사권한이 폭넓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법 제3조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호에 경찰의 직무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가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2항에서도 '사법경찰관은 범인·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에 그 직무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법경찰관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음호에 계속>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꽃샘 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 꽃샘 5호**
꿀대추차 1000g
꿀유자차 1000g
꿀솔잎차 1000g
- 꽃샘 6호**
꿀대추차 1200g
꿀유자차 1200g
- 꽃샘 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 600g
대추꿀차
- 꽃샘 기획세트 2호**
영지 꿀 차 1200g
잡 화 꿀 1200g
- 꽃샘 1호**
이카시아꿀 1200g
잡 화 꿀 1200g
- 꽃샘특선봉일1호**
잡화꿀 2200g
- 꽃샘특선봉일2호**
잡화꿀 1700g
- 꽃샘고려홍삼꿀세트**
홍삼꿀 1000g
- 꽃샘토종고구리1호**
토종꿀 2400g
- 꽃샘토종고구리3호**
토종꿀 1200g

(주)꽃샘종합식품(대표이사:이상갑)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대) FAX.(031)541-9933 www.ksfs.co.kr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는 080-541-9920